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
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
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기
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
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
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어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알맹이 못 믿으니 껍데기 어렵게 살아

15면에서 계속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그 컴퓨터로 하는걸 보면 뭐, 물체를 만들어서 그냥 마구 부수고 살인도 하고 터뜨려서 불이 나게 하기도 하고 순식간에 빛보다 더 빨리 그냥 공중으로 날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진하게 하는데 말입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허, 저것을 사람이 해놓고 사람들이 인제 그 속에서 죽지,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이 한데 합친 일들이 말입니다. 일불의 생각이 모두 보살들이거든요. 보살들이 응신으로 화해서 지금 그 테레비 화면에 나오는 것과 같이 하거든요. 자동적으로 보살은 공심으로서 공체로서 공용하면서 공심한다. 보살은 물론 그렇게 한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을 해하지 않죠. 사람들한테는 악이 있고 선이 있지만 남을 해하지 않죠. 선이 있지만 악도 그냥 선으로 화합이 되죠. 부처님의 마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빛보다 더 빨리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던 말입니다. 보살들의 응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느냐, 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체가 없는 마음이기 때문이죠.

마음은 얼마나 속도가 빠르지요... 사람들이 왜 다른건 다 나르는데도 우리 사람은 못 나르나 하죠. 그런데 그 보살들의 응신은 그냥 빛보다 더 빨리 날고 있지 않습니까. 속도가 그렇게 빠르니까, 그러니까 눈을 뜬 사람은 보고 눈을 감은 사람은 못 본단 얘기도, 이 허공에도 무엇이 날고 있는데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공부할 한분이라면 갑자기 큰 일이 벌어져서 도대체 움직이고 뭐지도 못할 때, 내 모습이 무엇이 화해서 여러 개가 되어 그것을 다 헤치고 모면하고 나갈 수가 있고 또 휘어잡을 수도 있고 그걸 감화시킬 수 있는 그런 법력이 있는 거죠.

그렇게 옛날의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 부처님이 지금 부처고 지금 부처가 미래의 부처일 겁니다. 부처님이 따로 있고 여러분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불종자가 누구냐가 다 심어져 있습니다. 본래! 본래 심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 단련을 해야죠. 야생마처럼 나왔으면 더욱이나, 자기를 자기가 다 스러야 된다.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남을 이익되게 할 수 있으며, 강을 건너 뛰다가 강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어떻게 건질 수가 있었습니까?

지금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렇게들 유능하게 발전해 가는 걸 볼 때에 참 기가 막힌 일이 뭐냐하면 저것이 부처님 마음인 보살이 응신으로 화해서 저렇게 들 한데 한 가지 틀린 게 있다 이겁니다. 이런 물질 위주로, 죽이고 살리는 거 위주로 그냥 날아다니고 묘기를 보이는 게 그렇더라도 세세생생에 끝끝내 남을 위해서 이렇게 진실한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진실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하면 그렇게 안 되겠지만 말입니다. 의문이 되는 것은 뭐냐하면 만든 기계화로 그렇게 하다가 본다면 자기는 거기에 얽매고 만듭니다. 만든 사람들이 말입니다.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응용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응용하다 보면은, 길게 가다 보면은 자기가 거기에 동여 매어져 있는 것을 모릅니다. 지배를 받게 되죠. 오히려, 그렇게 가다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불구덩이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자기의 앞길을 내다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런 물질화로 이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정신계의 발전으로 인해서 물질계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가만히 지켜볼 때에 참 흐릿한 게 많이 있어요. 여기 다니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디에도 기울어지지 않거든요. 자기 중심을, 주인공으로 중심을 딱 세우고 그 중심만, 그 정신 안에 있는 줄만 앞이 캄캄하면 볼 수 있고, 모든 것에서 나를 리드해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걸 믿고 가니까 어떤 거라도 모가 나지 않게 다 집어넣고 돌아다니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도, 풀 아니게 보니까 어디를 갖다 세워봐도 모가 나질 않죠. 잘 하는 걸 봐도 모가 나지

않고 못 하는 걸 봐도 모가 나지 않고, 일체 만물중에 고목을 봐도 모가 나지 않고, 심심한 나무를 봐도 모가 나지 않고, 하다못해 못 생각 될 하나를 봐도 모가 나지 않고 잘 생긴 풀을 봐도 모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쯤, 그렇게 차원이 높아졌다면 지구 증장될 겁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수백 수만으로 화해서 모두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온다... 지금 우리 오 지구에 우리 세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신 세계도 있고 악신 세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치는 대로 돌로 보지 않고 굴러기 때문에 이진 악이 될 수가 없죠. 선이다 할 것도 없지만 말이예요. 그대로 실천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를 해서 선이죠.

지금 시대가 시대나 만큼 모두 그런 거를 연구해서 그렇게 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보이지 않는데 귀신을 날리는 것 같아요. 이익하게 하지 않는 귀신들이요. 도깨비를 말입니다. 도깨비들이 날리고 어처구니 없게 왕가왕하고 야단을 하는 거, 그것이 심하면 사람들 살아가 참 막막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계의 차원을 높여서 길러라. 자기 영혼을 다스리고 영혼을 길들여서 둘 아니게 선신으로서 모든 것을 해나간다면 불성이라는 자기 기증 그 자체가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몸도 공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물 아닌 공체가기 때문에 그 몸에서 스스로 풍겨져 나올 겁니다. 그러나 일체 만물의 어머니가 되고 일체 만물의 바로 친구가 되고 벗이 되고 아니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애당초에 우리 생명체들이 지수화풍으로 인해서 온기가 생기고, 그래서 생명들이 생기고, 그 생명들이 자라다 보니까 그냥 마구, 누가 뭐 이러니 저러니 할 것도 없이 마구 자라고 마구 잡아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은 맨 나중에 낳지만 그렇게 실패를 본 거죠.

그런데 마음의 불성은 항상 리드해나가는 그런 부처이니까요. 모두 생기는 대로 불성을 심어줬단 말입니다.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 나쁘고 본래 약한게 아니라 그 불성이 본래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한 생각 돌리면



그림 · 최주현

수 있어요. 그러나 돌로 보지 않는 마음으로 가진 사람이 닦을 죽었을 때 닦은 바로 인도 환생 하면서 그 살은 악으로 쓴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살생이 되지 않죠. 그거를 모르고 그냥 내 생명만 생각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나 먹음 생각만 하니까, 그리고 내 자태로다가 항상 남을 재는 사람들. 나는 속 빼버리고 남의 생각으로 좀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는 소리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살생이 되죠.

어떤 나뭇꾼이 어느날 나무하는데 도끼로다가 탁 치니까 피가 주르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건 왜냐? 그 사람 눈엔 그렇게 피가 흐른 거죠. 그건 나무가 그 사람하고 인연이 지나간, 인연이 지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벌써 차원이 높아졌으

라서 자기가 왜 그렇게 부러나게 가고 싶은지도 모르고 그냥 휘어와 보니까 그 지경이다. 그러니까 진화를 해서 한 네 명 불러서는 차에 태워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수시로 생기는 일들이죠.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도 생기는 일들, 길을 지나가다 싸움이 붙으면 격정이 되는 게 뭐냐하면 약한 놈은 쓰러져서 두들겨 맞을 거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다쳤으면 들어내라는 돈 있죠? 그런데 생길까봐 그렇고, 또 그렇게 되면 간히죠.

그렇게 생길까봐 그렇고, 또 그렇게 되면 감히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또 그렇게 싸울 때는 물뿜을 가리지 않고 싸우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들어가서 달려야지 어떡합니까? 싸움하

떠나고 죽고 떠나고 하나나 살던 사람들은 다 없어지게 돼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사람으로 인도 환생을 했는데 습이 남아서 잡아먹길 좋아하고 그냥 남을 죽이길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 죽어서 도로 그리고 돌아가요, 도로, 도루묵이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게 끼리끼리 놓여져 있지 않은 게 없죠. 하다못해 요만한 거, 대추 하나라도 감하고 대추하고 한데 어우러진 게 하나도 없죠. 끼리끼리 놓여져 있지. 그렇듯이 누구가 이쪽으로 놓고 저쪽으로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저절로 차원이 일치된다면 일치된다면 가고 이차원이려면 이차원으로 가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갑니다. 금이 망가졌어도 금은 탄 데로 안 가요. 금방으로 가지, 강물은 제그리고 성하고 간에 광통 전으로 가죠. 광통 모여놓은 데로, 남자들은 남쪽으로 가고요. 무쇠는 무쇠대로 가고요. 그러니까 누가 갖다놓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대로, 그대로 그냥 옮겨지는 거죠. 사람도 역시 그래요.

우리가 찰나찰나 한생각을 하고 회향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냥 살다가 보면은 닦이면 닦이는 대로 그냥 해버리고는 회향을 제대로 하질 못하거나 이탈된 회향이 돼가지고선 그게 몽치고 쌓여서 고생들을 하게 돼요. 고생들 하고 사는 분 중에도 어버질 죽인다 자신을 죽인다 또는 강도를 한다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는데 모두 원인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

그래서 어린애를 낳기 전에 관해라. 좋은 영가를 받기 위해서 관해라. 어린이가 뱃속에 있을 적에도 관해라. 낳고도 관해라. 백일 위까지 그렇게 관하고 나면은 나중에 자기 스스로 간다 이러는 겁니다. 요새 회사를 그만 파하고 은행도 파하고 다 그만두고선 끼니가 간 데 없다 이러는 데 끼니 풀릴 게 없다 이러더라도 웃을 줄 알아야 돼. 웃을 줄 알아야지 눈을 흘리던 안개, 웃을 줄 알면 웃게된다 얘기가. 그런데 웃을 줄 모르고 그냥 제가끔들, 식구 수대로 제가끔들 속에 불안이 그냥 꼭 차가지고선 남편은 아내 보기가 그냥 귀찮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되니까, 길을 걸다가도 눈물이 나고 인생

수도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아요. 이해가 안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만한 거 하나도 버릴게 없다는 사실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걸 내가 말을 해요. 이해가 안 가는 사람도 있어야 할 거니까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아, 천차만별이 바로 하나도 버릴게 없다는 사실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저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런 사람도 있고 저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있고 모두가 동굴러가면서 이게... 그래서 바로 진리로서 이게 끊임없이 돌아가는 모양이예요.

여러분, 이 공부는 죽든지 살든지 해야 되는 공부입니다. 죽고 사는 걸 겁내지 마세요. 나 어떤 때는 아픈 사람을 이렇게 들여다 보고 올 땐, 그 사람은 나를 못 보겠지만 '너무 늦었구나' 하고 돌아설 때는 눈물이 나오. 형체 없는 형체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나쁜 거처럼 좋은 거처럼 하나도 버릴게 없다는 사실만 아신다면 우리가 모든 걸 다 리드하고 나갈 수 있고 자기 자신과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그 기반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내가 잠때 잠기가 들었거든요. 이날까지 약을 지어먹거나 드러누워서 낯잠을 자거나 이래본 예가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산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차를 타는데

찰나찰나 바뀌지는 세상 팔자 운명 따로 없으니 어떻게 와도 찰나찰나 바뀌가며 사세요

마음에 말입니다. 꼭 신도 하나가 남아요. 그 신도를 탄 차에 태우면 큰 일 날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내 차에 태우고 나는 그 신도 태운 차에 탔죠. 그랬는데 차 사고가 난 거예요. 그냥 들이받아서 이 두 다리가 딱 거기 끼어서 이렇게 부어오르고 가슴도 다쳤는데 그걸 치료를 안 했어요. 그럭하고부터 내가 말을 수심년 무치니까 많이 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 말을 무척 많이했어도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냥 무심했죠. 그랬더니 이번엔 잠기가 들구선 이 목이 아프고 그냥,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도 만나려고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파보니까 또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목이 아프면 마음도 괴롭구나. 마음이 괴로우면 몸도 아프구나. 그러니 누구를 잘못한다 잘한다. 빨리 해라. 마음공부 왜 이렇게 더디게 하느냐 이라고 야단을 칠 수 있을까? 어디, 하는 대로 같이 가보자 이라고는 있는 거예요. 아니, 무심코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아까 도깨비 장난들 모두 한다고 그랬죠? 우리 보살들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끌기 위해서 뛰지만 말입니다. 그게 칭찬받고 눈요 기하고 먹고 살라고 하는 거라면 나중에 가면 좋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정신력을 발전시켜서 그런 것도 보이지 않는 데서 좀 제재하고 언짢지 않게, 불에 모두 타 죽지 않고 돌아가게 하고, 그것도 자기의 정신을 발전시켜 겸해서 돌아가게 해야죠. '왜 남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러지 마시고, 모두 돌아가면서 보자보면은 별래로 있다가 집중이 되고 집중이 됐다가 또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됐다가 또 다른 게 되고 신선이 되고 또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때에 또 내가 그렇게 걸릴 지 아니까? 그러니까 그저 항상 나와 돌아다니게 보시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 어중이 떠중이 식으로 그냥 갖다가 주위 댔지만 말입니다. 그게 모두 살아나가는 진리 속에 있는 일들이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하다못해 미각 촉각 또는 시각 이런 거라도 우리가 자꾸 해버렸다면은 생기는 거니까요. 모든 게 겪적 마시고 거기 하나에서 다 나옵니다. 하나에서, 그 하나에서 다 나오니까...말입니다.

주인공만이 불밝히고 '나' 리드 할수 있어 물질로만 치닫다간 불 구덩이 빠지기 십상

악은 다 없어진다는 얘기도, 물이 아닌 깻때. 하지만 말입니다. 내 이 오장육부 모든 데에, 때에 따라서는 악성이 밖에서 들어와서 싸움에 이겨가지고 사람을 쓰러뜨리는 경우도 있고 이 내부 내에서도 투쟁이 벌어져서 싸우는 게 있거든요. 싸우게 되면 그냥 이기는 놈이 다 망쳐버리고 말죠. 그렇게 자기도 죽고 모두 죽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편안하게 운영하고 살게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편안하고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하지 않습니까? 이게 꼭 둘이 아니에요. 몸이 편안치 않으면은 마음도 편안치 않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편안치 않으면 거기가 놓고, 거기가 놓고 밀어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그냥, 오늘 저녁에 몹시 아팠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멀쩡하더라. 이렇게, 그저 찰나찰나 이렇게 바뀌면서 살아라 이런 뜻이죠. 어떤 게 오히려도 바뀌면서 살아라. 찰나찰나 바뀌지는 세상이 찰나찰나 바뀌지 쓰지 못하고 왜 이런 팔자라고 운명이라고 그러고 그냥 묵혀 두고 정어두느냐는 얘기도. 팔자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팔자 운명이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오계를 줄 때 흔히 '살생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네 생명같이 생각하라' 이랬죠? 종이든 종이 아니든, 네 생명같이 생각하라 하면 내 생명같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었습니까.

어떠한 사정으로도 죽을 수도 있겠죠. 뭐 닦도 죽일 수 있고 생선도 죽일

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도끼를 팽개치구서 나무 장사를 안 했어요. 그 나무 장사를 안해도 먹고 살기가 풍족하게 됐다는 얘기도,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 직감적으로 나무하고도 말이 통합니다. 만약에 나무가 자기 손이 자기를 들지 못하니까 '나 좀 도와줘.' 이리하면 뿌리가 패어졌으면 흙을 덮어주고는 '잘있어' 그러곤 돌아가죠. 그리고 어디를 가다가 보면 묘지를 있죠. 묘지 속에서 반기죠. 그런 인연이 돼서 또 물이 아닌 까닭에 그냥 그 산소는 비워놓고 그냥 천도가 되죠. 바로 내가 되니까.

이 모습만 보지 마세요. 마음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없는 게 마음이라고 합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전신 속에 그불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전력으로 인해서 수없이 발전을 할 수가 있듯이 마음의 발전, 손을 안 대고도 할 수 있는 발전이 얼마든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여기 처음 짓고 들어왔을 때 이 집 한 채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취객 세사람이 물 구덩이에 빠진 채로 정신을 잃고 그만 얼어죽게 되었습다. 그냥 쪽 빠져서 그렇게 됐으니 그거를 누가 건져 줬니? 사람이 오고 가죠. 그래서 사람을 부른 거예요. 불렀더니가 부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디 순경이 있어서 내가 그 순경속으로 들어간다면 순경이 독달같이 올겁니다. 아마, 왜 그래야하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이런 공부를 했다면 알겠지 만요. 그러나 이런 공부도 안 한 사람이 부러나게 가고 싶단 말입니다. 그냥, 그

기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리저리 서로 피해요. 그래서 저만치 데려다 주고 올 때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법이다 이것은 법이 아니다, 이것은 틀린 거다 안 틀린 거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수시로 생기는 일들이니까 자기가 감을 잡아서 하는 거죠. 그게 자성불이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수기를 줄 때는 그 자성이 연등불이 돼서 자기에게 수기를 준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서만 사람이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 공부한 사람들은 다 날아다닐 수 있다. 여기에서 미국 영국 독일로도 볼 수 있다 이리다만 실감나지 않아요? 화면 보듯이 보면 실감이 날 거 같아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본다면 정말이지 인생은 이름 없는 물방울 같으면서도 영원하구나 하는 걸 알 겁니다. 아마 바다물이 부딪쳐서 파도 칠때 물방울이 그렇게 많지만 가라앉으면 바다로 돌아가건만 그 물방울 하나 하나가 지금 아담 법석들이죠. 하지만 허무한 게 아닙니다. 우린 너무나 생생하게 여여하게 이 세상을 두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 있을 때 '내가 아이구, 거기 가서 태어났더라면 좋을 걸 갖다 그랬어.' 그러면 거기 가서 태어나는 거죠. 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함, 벌거벗고 사는 나라 있죠? 인디언들이 뭐, 그런 분들도 그 자리에 착을 두고 그렇게 살던 착만 두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자꾸 자꾸 죽고

이렇게 살아 될 하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예요. 인생으로 태어나서 이 구경을 하고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가득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 있는 사람 일입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모두 보지 않고 산다면 어떻게 배울니까? 어떻게 터득을 합니까? 벌레 먹은 나무를 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터득을 합니까? 그래서 일체 만물이 다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스승 아닌게 하나도 없으니 들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써 이 마음이, 때로는 어떤 사람이 아프다면 약사로 화해주고 관세음보살로도 화해주고 지장으로도 화해주고 주舍신으로도 화해주고 산신으로도 화해주고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들고 가도 그릇을,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의 그릇을 만들어 놓지 않고 받질 않아요. 내가 더러더러 이런 일을 당하게 했어요. 마음으로 거부한다면 그건 받아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옆집이 밥을 굶는다고 해서 쌀 한 말 말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거진 줄 아느냐고 내뱉고 그냥 문을 확 닫고 돌아서면 그거 줄 수 있었습니까? 우릴 어떻게 보고 그러냐고, 거지로 보느냐고 이러고 그냥 안 받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먹을 게 조금 남았더라도 그걸 가져왔으면 참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놓고 자기가 어떠한 일이 있으면 잠을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
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
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기
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
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
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어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알맹이 못 믿으니 껍데기 어렵게 살아

15면에서 계속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그 컴퓨터로 하는걸 보면 뭐, 물체를 만들어서 그냥 마구 부수고 살인도 하고 터뜨려서 불이 나게 하기도 하고 순식간에 빛보다 더 빨리 그냥 공중으로 날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진하게 하는데 말입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허, 저것을 사람이 해놓고 사람들이 인제 그 속에서 죽지,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이 한데 합친 일들이 말입니다. 일불의 생각이 모두 보살들이거든요. 보살들이 응신으로 화해서 지금 그 테레비 화면에 나오는 것과 같이 하거든요. 자동적으로 보살은 공심으로서 공체로서 공용하면서 공심한다. 보살은 물론 그렇게 한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을 해하지 않죠. 사람한테는 악이 있고 선이 있지만 남을 해하지 않죠. 악도 그냥 선으로 화합이 되죠. 부처님의 마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빛보다 더 빨리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던 말입니다. 보살들의 응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느냐, 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체가 없는 마음이기 때문이죠.

마음은 얼마나 속도가 빠르지요... 사람들이 왜 다른건 다 나르는데도 우리 사람은 못 나르나 하죠. 그런데 그 보살들의 응신은 그냥 빛보다 더 빨리 날고 있지 않습니까. 속도가 그렇게 빨리냐고. 그러니까 눈을 뜬 사람은 보고 눈을 감은 사람은 못 본단 얘기도, 이 허공에도 무엇이 날고 있는데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공부할 한분이라면 갑자기 큰 일이 벌어져서 도대체 움직이지도 못할 때, 내 모습이 무엇이 화해서 여러 개가 되어 그것을 다 헤치고 모면하고 나갈 수가 있고 또 휘어잡을 수도 있고 그걸 감화시킬 수 있는 그런 법력이 있는 거죠.

그렇게 옛날의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 부처님이 지금 부처고 지금 부처가 미래의 부처일 겁니다. 부처님이 따로 있고 여러분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불종자가 누구냐가 다 심어져 있습니다. 본래! 본래 심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 단련을 해야죠. 야생마처럼 나왔으면 더욱이나, 자기를 자기가 다 스러야 된다.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남을 이익되게 할 수 있으며, 강을 건너 뛰다가 강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어떻게 건질 수가 있었습니까?

지금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렇게들 유능하게 발전해 가는 걸 볼 때에 참 기가 막힌 일이 뭐냐하면 저것이 부처님 마음인 보살이 응신으로 화해서 저렇게 들 한데 한 가지 틀린 게 있다 이겁니다. 이런 물질 위주로, 죽이고 살리는 거 위주로 그냥 날아다니고 모기를 보이는 게 그렇더라도 세세생생에 끝끝내 남을 위해서 이렇게 진실한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진실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하면 그렇게 안 되겠지 말입니다. 의문이 되는 것은 뭐냐하면 만든 기계화로 그렇게 하다가 본다면 자기는 거기에 얽매고 맙니다. 만든 사람들이 말입니다.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응용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응용하다 보면은, 길게 가다 보면은 자기가 거기에 동여 매어져 있는 것을 모릅니다. 지배를 받게 되죠. 오히려, 그렇게 가다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불구덩이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자기의 앞길을 내다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런 물질화로 이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정신계의 발전으로 인해서 물질계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가만히 지켜볼 때에 참 흐릿한 게 많이 있어요. 여기 다니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디에도 기울어지지 않거든요. 자기 중심을, 주인공으로 중심을 딱 세우고 그 중심만이, 그 전선 안에 있는 줄만이 앞이 캄캄하면 볼 수 있고, 모든 것에서 나를 리드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걸 믿고 가니까 어떤 거라도 모가 나지 않게 다 집어넣고 돌아다니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도, 풀 아니게 보니까 어디를 갖다 세워봐도 모가 나질 않죠. 잘 하는 걸 봐도 모가 나지

않고 못 하는 걸 봐도 모가 나지 않고, 일체 만물중에 고목을 봐도 모가 나지 않고, 심심한 나무를 봐도 모가 나지 않고, 하다못해 못 생각 될 하나를 봐도 모가 나지 않고 잘 생긴 풀을 봐도 모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쯤, 그렇게 차원이 높아졌다면 지구 증장될 겁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수백 수만으로 화해서 모두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온다... 지금 우리 오 지구에 우리 세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신 세계도 있고 악신 세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치는 대로 돌로 보지 않고 굴러기 때문에 이진 악이 될 수가 없죠. 선이다 할 것도 없지만 말이예요. 그대로 실천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를 해서 선신이죠.

지금 시대가 시대나 만큼 모두 그런 거를 연구해서 그렇게 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보이지 않는데 귀신을 날리는 것 같아요. 이익하게 하지 않는 귀신들이요. 도깨비들 말입니다. 도깨비들이 날리고 어처구니 없게 왕가왕하고 야단을 하는 거, 그것이 심하면 사람들 살아가 참 막막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계의 차원을 높여서 길러라. 자기 영혼을 다스리고 영혼을 길들여서 둘 아니게 선신으로서 모든 것을 해나간다면 불성이라는 자기 기증 그 자체가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몸도 공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물 아닌 공체가기 때문에 그 몸에서 스스로 생겨져 나올 겁니다. 그러나 일체 만물의 어머니가 되고 일체 만물의 바로 친구가 되고 벗이 되고 아니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애당초에 우리 생명체들이 지수화풍으로 인해서 온기가 생기고, 그래서 생명들이 생기고, 그 생명들이 자라다 보니까 그냥 마구, 누가 뭐 이러니 저러니 할 것도 없이 마구 자라고 마구 잡아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맨 나중에 낳지만 그렇게 실패를 본 거죠.

그런데 마음의 불성은 항상 리드해나가는 그런 부처이니까요. 모두 생기는 대로 불성을 심어줬단 말입니다.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 나쁘고 본래 악한게 아니라 그 불성이 본래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한 생각 돌리면



그림·최주현

수 있어요. 그러나 돌로 보지 않는 마음으로 가진 사람이 닦을 죽었을 때 닦은 바로 인도 환생 하면서 그 살은 악으로 쓴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살생이 되지 않죠. 그거를 모르고 그냥 내 생명만 생각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나 먹음 생각만 하니까, 그리고 내 자태로다가 항상 남을 재는 사람들. 나는 속 빼버리고 남의 생각으로 좀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는 소리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살생이 되죠.

어떤 나뭇꾼이 어느날 나무하는데 도끼로다가 탁 치니까 피가 주르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건 왜냐? 그 사람 눈엔 그렇게 피가 흐른 거죠. 그건 나무가 그 사람하고 인연이 지나간, 인연이 지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벌써 차원이 높아졌으

라서 자기가 왜 그렇게 부러나게 가고 싶은지도 모르고 그냥 휘어와 보니까 그 지경이다. 그러니까 진화를 해서 한 네 명 불려서는 차에 태워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수시로 생기는 일들이죠.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도 생기는 일들, 길을 지나가다 싸움이 붙으면 격정이 되는 게 뭐냐하면 약한 놈은 쓰러져서 두들겨 맞을 거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다쳤으면 들어내라는 돈 있죠? 그런데 생길까봐 그렇고, 또 그렇게 되면 간히죠.

그렇게 생길까봐 그렇고, 또 그렇게 되면 감히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또 그렇게 싸울 때는 물뿜을 가리지 않고 싸우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들어가서 달려야지 어떡합니까? 싸움하

떠나고 죽고 떠나고 하나나 살던 사람들은 다 없어지게 돼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사람으로 인도 환생을 했는데 습이 남아서 잡아먹길 좋아하고 그냥 남을 죽이길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 죽어서 도로 그리고 돌아가요. 도로, 도루복이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게 끼리끼리 놓여져 있지 않은 게 없죠. 하다못해 요만한 거, 대추 하나라도 감하고 대추하고 한데 어우러진 게 하나도 없죠. 끼리끼리 놓여져 있지. 그렇듯이 누구가 이쪽으로 놓고 저쪽으로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저절로 차원이 일치된다면 일치된다면 가고 이차원이려면 이차원으로 가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갑니다. 금이 망가졌어도 금은 탄 데로 안 가요. 금방으로 가지, 강물은 제그리고 성하고 간에 광통 전으로 가죠. 광통 모여놓은 데로. 남자들은 남자로 가고요. 무쇠는 무쇠대로 가고요. 그러니까 누가 갖다놓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대로, 그대로 그냥 옮겨지는 거죠. 사람도 역시 그래요.

우리가 찰나찰나 한생각을 하고 회향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냥 살다가 보면은 닦이면 닦이는 대로 그냥 해버리고는 회향을 제대로 하질 못하거나 이탈된 회향이 돼가지고선 그게 몽치고 쌓여서 고생들을 하게 돼요. 고생들 하고 사는 분 중에도 어찌할 죽인다 자신을 죽인다 또는 강도를 한다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는데 모두 원인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

그렇게 어린애를 낳기 전에 관해라. 좋은 영가를 받기 위해서 관해라. 어린이가 뱃속에 있을 적에도 관해라. 낳고도 관해라. 백일 위까지 그렇게 관하고 나면은 나중에 자기 스스로 간다 이러는 겁니다. 요새 회사를 그만 파하고 은행도 파하고 다 그만두고선 끼니가 간 데 없다 이러는 데 끼니 풀릴 게 없다 이러더라도 웃을 줄 알아야 돼. 웃을 줄 알아야지 눈을 흘리던 안개, 웃을 줄 알면 웃게된다 얘기가. 그런데 웃을 줄 모르고 그냥 제가끔들, 식구 수대로 제가끔들 속에 불안이 그냥 짙어지고선 남편은 아내 보기가 그냥 귀찮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되니까, 길을 걸다가도 눈물이 나고 인생

수도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이해가 안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만한 거 하나도 버릴게 없다는 사실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걸 내가 말을 해요. 이해가 안 가는 사람도 있어야 할 거니까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아, 천차만별이 바로 하나도 버릴게 없다는 사실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저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런 사람도 있고 저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있고 모두가 동굴러가면서 이게... 그래서 바로 진리로서 이게 끊임없이 돌아가는 모양이예요.

여러분, 이 공부는 죽든지 살든지 해야 되는 공부입니다. 죽고 사는 걸 겁내지 마세요. 나 어떤 때는 아픈 사람을 이렇게 들여다 보고 올 땐, 그 사람은 나를 못 보겠지만 '너무 늦었구나' 하고 돌아설 때는 눈물이 나오. 형체 없는 형체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나쁜 거처럼 좋은 거처럼 하나도 버릴게 없다는 사실만 아신다면 우리가 모든 걸 다 리드하고 나갈 수 있고 자기 자신과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그 기반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내가 잠때 잠기가 들었거든요. 이날까지 약을 지어먹거나 드러누워서 낯잠을 자거나 이래본 예가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산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차를 타는데

찰나찰나 바뀌지는 세상 팔자 운명 따로 없으니 어떻게 와도 찰나찰나 바뀌가며 사세요

마음에 말입니다. 꼭 신도 하나가 남아요. 그 신도를 탄 차에 태우면 큰 일 날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내 차에 태우고 나는 그 신도 태운 차에 탔죠. 그랬는데 차 사고가 난 거예요. 그냥 들이받아서 이 두 다리가 딱 거기 끼어서 이렇게 부어오르고 가슴도 다쳤는데 그걸 치료를 안 했어요. 그럭하고부터 내가 말을 수십 년 무척이나 많이 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 말을 무척 많이했어도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냥 무심했죠. 그랬더니 이번엔 잠기가 들구선 이 목이 아프고 그냥,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도 만나려고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파보니까 또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목이 아프면 마음도 괴롭구나. 마음이 괴로우면 몸도 아프구나. 그러니 누구를 잘못한다 잘한다. 빨리 해라. 마음공부 왜 이렇게 더디게 하느냐 이라고 야단을 칠 수 있을까? 어디, 하는 대로 같이 가보자 이라고는 있는 거예요. 아니, 무심코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아까 도깨비 장난들 모두 한다고 그랬죠? 우리 보살들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끌기 위해서 뛰지만 말입니다. 그게 칭찬받고 눈요 기하고 먹고 살라고 하는 거라면 나중에 가면 총질 잘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정신력을 발전시켜서 그런 것도 보이지 않는 데서 좀 제재하고 언짢지 않게, 불에 모두 타 죽지 않고 돌아가게 하고, 그것도 자기의 정신을 발전시켜 겸해서 돌아가게 해야죠. '왜 남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지 마시고, 모두 돌아가면서 보자보면은 별래로 있다가 집중이 되고 집중이 됐다 또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됐다 또 다른 게 되고 신선이 되고 또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데 이 때에 또 내가 그렇게 걸릴 지 아니냐? 그러니까 그저 항상 나와 돌아다니게 보시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 어찌가 떠돌이 식으로 그냥 갔다가 추위 됐지만 말입니다. 그게 모두 살아나가는 진리 속에 있는 일들이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하다못해 미각 촉각 또는 시각 이런 거라도 우리가 자꾸 해버렸다면은 생기는 거니까요. 모든 게 겪고 마시고 거기 하나에서 다 나옵니다. 하나에서, 그 하나에서 다 나오니까...말입니다.

주인공만이 불밝히고 '나' 리드 할수 있어 물질로만 치닫다간 불 구덩이 빠지기 십상

악은 다 없어진다는 얘기도, 물이 아닌 깻때, 하지도 않단 말입니다. 내 이 오장육부 모든 데에, 때에 따라서는 악성이 밖에서 들어와서 싸움에 이겨가지고 사람을 쓰러뜨리는 경우도 있고 이 내부 내에서도 투쟁이 벌어져서 싸우는 게 있거든요. 싸우게 되면 그냥 이기는 놈이 다 망쳐버리고 말죠. 그렇게 자기도 죽고 모두 죽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편안하게 운영하고 살게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편안하고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하지 않습니까? 이게 꼭 둘이 아니에요. 몸이 편안치 않으면은 마음도 편안치 않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편안치 않으면 거기가 놓고, 거기가 놓고 밀어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그냥, 오늘 저녁에 몹시 아팠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멀쩡하더라. 이렇게, 그저 찰나찰나 이렇게 바뀌면서 살아라 이런 뜻이죠. 어떤 게 오히려도 바뀌면서 살아라. 찰나찰나 바뀌지는 세상이 찰나찰나 바뀌지 쓰지 못하고 왜 이런 팔자라고 운명이라고 그러고 그냥 묵혀 두고 정어두느냐는 얘기도. 팔자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팔자 운명이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오계를 줄 때 흔히 '살생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네 생명같이 생각하라' 이랬죠? 종이든 종이 아니든, 네 생명같이 생각하라 하면 내 생명같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었습니까. 어떠한 사정으로도 죽일 수도 있겠죠. 뭐 닭도 죽일 수 있고 생선도 죽일

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도끼를 팽개치구서 나무 장사를 안 했대요. 그 나무 장사를 안해도 먹고 살기가 풍족하게 됐다는 얘기도,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 직감적으로 나무하고도 말이 통합니다. 만약에 나무가 자기 손이 자기를 들지 못하니까 '나 좀 도와줘.' 이리하면 뿌리가 패어졌으면 흙을 덮어주고는 '잘있어' 그러곤 돌아가죠. 그리고 어디를 가다가 보면 묘지를 있죠. 묘지 속에서 반기죠. 그런 인연이 돼서 또 물이 아닌 까닭에 그냥 그 산소는 비워놓고 그냥 천도가 되죠. 바로 내가 되니까.

이 모습만 보지 마세요. 마음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없는 게 마음이라고 합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전선 속에 그불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전력으로 인해서 수없이 발전을 할 수가 있듯이 마음의 발전, 손을 안 대고도 할 수 있는 발전이 얼마든지 되는 겁니다.

어전에 여기 쳐들고 들어왔을 때 이 집 한 채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취객 세사람이 물 구덩이에 빠진 채로 정신을 잃고 그만 얼어죽게 되었습다. 그냥 쪽 빠져서 그렇게 됐으니 그거를 누가 건져 줬니? 사람이 오고 가요. 그래서 사람을 부른 거예요. 불렀더니가 부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디 순경이 있어서 내가 그 순경속으로 들어간다면 순경이 독달같이 올겁니다. 아, 왜 그래야하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이런 공부를 했다면 알겠지 만요, 그러나 이런 공부도 안 한 사람이 부러나게 가고 싶단 말입니다. 그냥, 그

기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리저리 서로 피해요. 그래서 저만치 데려다 주고 올 때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법이다 이것은 법이 아니다, 이것은 틀린 거다 안 틀린 거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수시로 생기는 일들이니까 자기가 감을 잡아서 하는 거죠. 그게 자성불이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수기를 줄 때는 그 자성이 연등불이 돼서 자기에게 수기를 준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서만 사람이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 공부한 사람들은 다 날아다닐 수 있다. 여기에서 미국 영국 독일로도 볼 수 있다 이리다만 실감나지 않아요? 화면 보듯이 보면 실감이 날 거 같아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본다면 정말이지 인생은 이름 없는 물방울 같으면서도 영원하구나 하는 걸 알 겁니다. 아마 바다물이 부딪쳐서 파도 칠때 물방울이 그렇게 많지만 가라앉으면 바다로 돌아가건만 그 물방울 하나 하나가 지금 아담 법석들이죠. 하지만 허무한 게 아닙니다. 우린 너무나 생생하게 여여하게 이 세상을 두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 있을 때 '내가 아이구, 거기 가서 태어났더라면 좋을 걸 갖다 그랬어.' 그러면 거기 가서 태어나는 거죠. 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함, 벌거벗고 사는 나라 있죠? 인디언들이 뭐, 그런 분들도 그 자리에 착을 두고 그렇게 살던 착만 두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자꾸 자꾸 죽고

이렇게 살아 될 하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예요. 인생으로 태어나서 이 구경을 하고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가득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 있는 사람 일입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모두 보지 않고 산다면 어떻게 배울니까? 어떻게 터득을 합니까? 벌레 먹은 나무를 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터득을 합니까? 그래서 일체 만물이 다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스승 아닌게 하나도 없으니 들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써 이 마음이, 때로는 어떤 사람이 아프다면 약사로 화해하고 관세음보살로도 화해하고 지장으로도 화해하고 주舍신으로도 화해하고 산신으로도 화해하고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들고 가도 그릇을,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의 그릇을 만들어 놓지 않고 받질 않아요. 내가 더러더러 이런 일을 당하게 했어요. 마음으로 거부한다면 그건 받아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옆집이 밥을 굶는다고 해서 쌀 한 말 가지고 갔는데 우리가 거진 줄 아느냐고 내뱉고 그냥 문을 확 닫고 돌아서면 그거 줄 수 있었습니까? 우릴 어떻게 보고 그러냐고, 거지로 보느냐고 이러곤 그냥 안 받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먹을 게 조금 남았더라도 그걸 가져왔으면 참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놓고 자기가 어떠한 일이 있으면 잠을